

남자들이 얘기하는
여자 이야기

풍자와 해학의
구수한 한마당



17~19일 문예회관

해학과 유머가 어우러진 두 남자의 유쾌한 이야기 '유지결 두 남자'가 공연된다. 17일 오후 7시30분, 18~19일 오후 3시·6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두남자’는 허쾌허식으로 뒤통인 남성 중심 전통 양반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는 현명한 한 여자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 허위와 기만에 찬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등장인물은 김삼과 주오. 체면을 중시하는 선비 집안에서 하는 일이 나이만 먹은 두 노총각은 돈 한 번 벌여보겠다는 생각으로 술장사를 시작한다.

대낮에 벌어지는 술주정 같은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남자들의 엉뚱한 속내와 웃음을 유도하고, 남자들의 도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는 여자 정씨의 이야기가 어우러진다.

북지 TV 광주방송이 문화 나눔행사로 마련한 이번 공연에서는 장애인과 소외 계층 커플을 대상으로 공개 프로포즈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며 수익금은 사회복지협회 등에 기부한다. 또 모든 관객에게는 커플을 제공한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062-261-11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모습.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Wish to fly' 세번째 무대

멜로디로 전하는 가족 사랑일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장 이어진)이 지난해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Wish to fly' 시리즈는 어린이합창단 공연이 갖고 있는 관례를 깨트린 무대였다. 스토리가 있는 공연 레퍼토리와 안무, 다양한 무대 장치 등이 어우러지면서 'Wish to fly' 시리즈는 광주가 자랑할 만한 '가족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관객들의 호응 역시 좋아서 두 차례 공연 모두 입석까지 티켓을 판매하며 호응을 얻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세번째 시리즈의 타이틀은 '방-다시 쓰는 일기'다.

지난해 두 차례 공연이 불거려가 많은 화려한 무대였다면 이번에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강조했다.

‘방-다시 쓰는 일기’

18일 문예회관 대극장

가족문화상품 자리매김

아카펠라·통기타 어우러져

작품의 무대는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방'이다. 그리고 작품을 이끌어가는 소재는 우리의 '일기장'이다. 하루의 일상을 정리하는 '일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첫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유년 시절의 일기'를 꺼내 보여준다. 단원들이 무반주

로 선보이는 아카펠라 공연으로 꾸며지며 '봄', '아기염소', '파란마음 하얀마음' 등 동요가 관객들의 추억찾기를 돕는다.

두번째 우리가 읽게 되는 건 '학창 시절의 일기'다. 통기타와 어우러진 무대로 '친구여', '어느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 '에레스 투' 등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무대는 '다시 쓰는 일기'다. '사노라면' '희망가'가 불려지며 피날레 곡 '해피 버스테이 투유'는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49명 단원과 함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동요교실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며 김성광 JS오케스트라가 라이브 반주를 맡는다.

티켓 가격 1만원, 5000원. 문의 062-613-82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V 맛집의 실상... 시청자는 조롱당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내일 '트루맛쇼' 상영

“TV에 나오는 맛집은 왜 맛이 없을까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개관 4주년을 맞아 오는 17일 오후 7시 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맛집 프로그램들의 실상을 파헤친 '트루맛쇼'를 상영한다.

'트루맛쇼'는 TV 맛집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헤친 다큐멘터리영화로 방송사가 작품상영에 대한 상영금지 가져본 신청을 하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김재환<사진> 감독은 직접 식당을 차리고 카메라를 설치해 출연을 섭외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그리고 식당 간의 유착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김 감독은 맛집 프로그램 제작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조롱당한 시청자들에게 식당의 맛이 아닌 '방송의 맛'까지 잃어버리고 있음을 영화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김 감독을 초청



해 작품제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궁금점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관람료는 무료다. 문의 062-650-0326.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선과 비움의 미학 속 강한 메세지

문인화가 김영삼 개인전, 내달 3일까지 로터스갤러리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문인화가 우송헌(烏松軒) 김영삼씨가 광주시 상무지구 무각사 문화관 내 로터스갤러리에서 다음달 3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여명의 에세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 김씨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문인화의 여백의 미를 재해석하고 그 안에 감춰진 메시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해내는 새로운 조형미를 창조해 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늘 그러하기를’ 연작 등 고독감과 허탈감을 주제로 한 문인화의 현대적 해석에 기초를 둔 작품들을 주로 선보인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선과 비움의 미학으로 그림 속에 강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자신의 감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자하는 작가의 변신과 자유로움을 주로 선보인다.

김씨는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미술상과 국전 특선 3회 입상했다. 문인화



‘늘 그러하기를’

연구회, 목우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대 서예한문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문의 062-655-710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흑백영상에 담은 삶... 고향... 자연...

‘그리며’ 창립30주년 기념전, 18~22일 남구문예회관

사진 모임 ‘그리며’(회장 김유로)가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남구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전을 갖는다.

1981년 창립한 흑백 사진 모임인 ‘그리며’는 매년 회원 개인별로 주제를 정해 작품을 전시하는 준(準) 개인전 성격의 회원전을 열었다. 이번 기념전에서는 회원들의 그동안 작품을 결산하는 작품과 최근작 63점이 선보인다. 특별히 ‘그리며’에서 활동했던 옛 회원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대학 시절부터 카메라를 잡아온 회원들은 ‘풀이 있는 풍경’, ‘도시’, ‘풍경’ 등 자신이 정한 주제에 맞춰 다양한 삶의 모습과 고향의 정서, 자연 등을 따뜻한 흑백 영상에 담아냈다.

참여 회원은 차일현 고문을 비롯해 김현석·윤영희·백수성·김경모·윤영창·김진철·



김현석 작 '도시의 명암-2011'

남정현·서정옥·김도영·이정표씨 등이다. 문의 062-670-255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후변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

문화교류호남재단 ‘시민대학’ 강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문병란)과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제1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이 오는 22일부터 5주간(매주 수요일 오후 3시)의 일정으로 광주YMCA에서 열린다.

‘기후변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시민대학은 계속되는 기

후 변화와 자연 재해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민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 마련한 강좌다.

박명희(전남대 호남학연구원), 박석무(단국대 석좌교수), 이새륜(좋은벗들 팀장), 한규무(광주대 교수),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씨가 ‘지진(地震)과 16세기 한시’, ‘태풍과 다산 정약용’ 등의 내용으로 강연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이들은 20일까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2만원이며 4강좌 이상 참여 땀 전액 환불된다. 문의 062-234-2727. /김대성기자 bigkim@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주차장용지·이주주택지·협업주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소태동 잡종지매매.

●동구 소태동 대이아파트 부근.잡종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지 매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내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

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무안 합평 영광 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 개간 가능한
임야도 좋음. 10,000㎡ - 70,000㎡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
2동.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충금 2억원
월세1천3백만원 매매가 20억원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충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운전저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4층건물 매매가 8억5천만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대지.전.답.임야

☆.광송간 대로변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마북동 답3,000㎡ 매매가 7억원

☆.벽진동 답5,600㎡ 매매가 11억원

☆.금호동 답1,600㎡ 매매가 4억2천만원

☆.오치동 대지506㎡ 매매가 4억6천만원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접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암촌동 정착촌마을대 : 3,600㎡
매매가4억3천

☆.광산구 옥동(평동)주거지역 답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광산구 우산동 답279㎡ 매매가 4,200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
매매가 : 4억5천만원

♣.주유소매매
☆.광산구 오운동 시외에서 시내방향 2복식3대
매매가 9억원(면세유 다량 판매가능)

062-374-5945

010-3162-4989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도곡운천 무인모텔 객실70 감정48억 대출30억 매도38억

●쌍촌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0억7천

●금남로 3가 대로변 건물중의 1층과 2층 109평 감정 15억8
천 회사사옥, 병원·의원 기능 가격은 협의의비람

●금남로 청업금고점 대로변 땅 247평 중심 상업지역, 영업장
될 공시지가 13억 투자가치 좋음 18억

●충정로 5가 수퍼건물 대지27 공시지가 1억9천2백 매도 1억8천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감정15억4천 임대면적은
전세5천만원 월560만원 대출5억5천 매도5억3천

●유촌동 땅 1632평 청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 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청고·공장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기에 매도8700만원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5천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 원룸.다가구주택적합
공시지가 6억8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광산구 주유소 땅470 대출7억 금8억93천

●대인동 계림시장옆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
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대인동 바스도리식당 대지63㎡ 공시지기에 매도 1억3400

■매도·교환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남평읍 교원리 바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

●사립부지. 북구 덕의동 광주북부 1840평 4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